

[사회]

“U대회 다음에는 반드시...”

밤샘 거리응원 광주 시민들 허탈감 속 재기 다짐

1일 새벽 3시30분, 광주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칼리안 위원장의 입에서 “광주” 대신 “카잔(Kazan, 러시아)”이 호명되는 순간, 광주시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밤새 뜬 눈으로 응원했던 광주 시민들은 통한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광주시는 하계U대회 유치 걸거리 응원을 위해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세웠다. 지난달 31일 밤부터 몰려온 3천여명의 시민들은 1일 새벽 광주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전까지 ‘대~한민국’ 리듬에 맞춰 ‘광주’를 외치며 성원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별기에 브뤼셀에서의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거운 침묵과 허탈감

이 걸거리 응원장을 엄습했다. 광주와 카잔이 2차 결선투표를 치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차투표에서 카잔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시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부 시민들은 축배를 들기 위해 준비했던 술로 쓰린 속을 달래기도 했다.

강현석(38·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5·18과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광주 이미지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한 경기장 등 체육시설로 보아 유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게 탈락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하계U대회 유치 경험을 살려 앞으로 또 다른 국제 대회 유치가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김동호(5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계 U대회 유치가 최선을 다했

지만 세 차례 도전을 한 끝에 성공한 러시아에는 못 미쳤던 것 같다”며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2015년에도 도전해서 광주 시민의 끈기와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으면 한다”고 눈물을 삼켰다.

지난 5개월 동안 U대회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던 담당 공무원들 또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탈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응원을 위해 마련된 무대에 올라 “하계U대회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으면 세계 속의 일등 광주를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U대회 유치를 위해 애써온 시민과 직원들이 흘려뿜은 땀과 열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시민들을 위로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 마련된 하계 U대회 걸거리 응원전에 참가한 시민들이 1일 새벽 광주시가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위탁기자 jrwi@

우산 필수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17~25℃
주요	흐리고 비	16~23℃
포항	흐리고 비	17~21℃
수원	흐리고 비	17~22℃
대구	흐리고 비	15~25℃
부산	흐리고 비	17~23℃
인천	흐리고 비	16~22℃
대전	흐리고 비	16~23℃
충주	흐리고 비	14~25℃
전주	흐리고 비	15~24℃
목포	흐리고 비	15~23℃
여수	흐리고 비	16~25℃
제주	흐리고 비	14~25℃
울릉도	흐리고 비	14~21℃
독도	흐리고 비	14~21℃

6월 2일

(음 4월 29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0:26 썰물 < 05:59
목포 밀물 < 12:31 썰물 < 18:02
여수 밀물 < 07:32 썰물 < 01:30
여수 밀물 < 20:14 썰물 < 13:36

▲해돋이 05:19 ▲해질림 19:42 ▲달돋음 03:24 ▲달질림 18: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씨						
최저/최고	16/25	14/24	15/23	14/26	15/25	16/24

광주 시내버스 파업 유보

10일까지 연기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31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유보해 당분간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를 기해 들어가기로 예고했던 파업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유보하는 대신, 광주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전국소년체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지원 시민행사 등은 차질없이 치뤄지게 됐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노사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내버스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당초 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했으나, 광주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 내부 논의 끝에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92.5%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노동위는 전국소년체전 기간인 이달 3일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으로 대규모 행사 차질과 시민불편이 우려돼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며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학교폭력 자진신고 선처 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주,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폭력 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행위를 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및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 인터넷 신고는 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등이다. /연합스

검찰 고무줄 구속·구형 없앤다

범죄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시비를 겪어왔던 검찰이 이번 오해를 불식시키려 1천500여개 범죄유형별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적용한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천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형량 등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간강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간강 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간강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5천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광주·전남 이번 주 잦은 비

6월 첫째 주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은 이번 주

중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6일(금요일)과 8일(일요일)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75%가 개인적 용무 사용

긴급 구조·구급을 위해 도입한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개인 용무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119종합상황실에 접

수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은 총 166건이지만 이중 실제 구조 등 긴급 상황과 관련된 사례는 42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4건은 대부분 개인 사정에 의한 단순 가족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 위치 확인, 자녀의 늦은 귀가 등이어서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119 상황실의 소방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희중기자 chae@

꼭내영교육학

www.konae.com

529-0090 개강 7월 4일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가?

www.konae.com

새로운 국가자격종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각반 40명)

교육과정	차리중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차리중 2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신규 모집반	09:00~18:00월~금	신규 모집반	18:00~22:00월~금
신규 오후반	09:00~17:00월~금	차리중 1반	18:00~22:00
신규 오전반	14:00~18:00월~금	차리중 2반	18:00~22:00
신규 야간반	17:30~22:00월~금	차리중 1반	18:00~22:00
		차리중 2반	18:00~22:00

보통급 마수 후 시험합의 1급 국가자격증 교부
고용보험 가입으로 국가 지원 혜택 (6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소지자 혜택 (지원한도내 100%)

가톨릭 요양보호사교육원

062)364-1152~3
062)368-2070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www.yeuljeong.com

www.konae.com

www.konae.com

www.konae.com